

3개월 리모델링

목포시청 새단장

목포시 청사가 3개월에 걸친 리모델링을 마치고 산뜻하게 단장됐다. <사진> 목포시는 청사가 준공된 지 29년이 지나 노후화로 인한 단열 등 에너지 효율성이 저하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지난해 10억(교부세 7억



포함)원을 들여 본관 등을 리모델링 했다.

특히 목포시는 이같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청사 에너지 절약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통교부세 12억 원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246개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 분청 청사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전기·연료) 에너지 절감률을 평가한 것으로, 전남도와 22개 시·군에서 1위, 전국 기초 단체에서 17위를 차지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장흥 아열대 과일 천혜향 수확 장흥군 회진면 시설하우스에서 아열대 과일인 '천혜향' 수확작업이 한창이다. 주민들은 키토산·불가사리·해초 등의 퇴비를 자가 생산해 투입하는 방식으로 재배, 현재 무농약 인증을 획득했으며, 올해 9을 수확해 연 1억여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담양에 '개구리 생태공원'

국내 유일...100억원 들여 2014년까지 조성

오는 2014년 담양에 국내 유일의 '개구리 생태공원'이 조성된다. 담양군은 "민선 5기 생태도시화 정책을 추진하며 자연생태환경과 친환경 농업의 상징인 '개구리 생태공원' 조성 유지를 추진, 군 자체적인 조사는 물론 전남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와 합동으로 개구리 생태조사 실시 등 전남도와 환경부로부터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비 50억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개구리 생태공원'은 오는 2014년까지 국비 50억원과 군비 50억원 등 총 100억원을 들여 부지 9만9000㎡에 전시관과 생태관, 사육실을 비롯해 야생생태학습장과 생태연못 등을 조성하게 된다. 군은 다음달 중 타당성 조사 등 용역에 착수, 결과를 바탕으로 '개구리 생태공원' 적격지 선정 등 전남도와 환경부로부터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비 50억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치는 물론 "생태도시 담양" 이미지를 확고히 해 담양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 시장에서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 개구리 생태조사 결과 가마골 생태공원과 추월산 등 담양호 주변에는 1급수에만 서식하는 무당개구리를 비롯해 도롱뇽과 참개구리가, 홍수조절습지와 소쇄원에는 멸종 위기종인 맹꽁이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최형식 담양군수

"관광 연계 '경영하는 농업' 육성"

최형식 담양군수는 새해 국정 목표에 서민과 농민·소상공인'이 행복한 고장 만들기'에 맞췄다. 이를 위해 ▲경영행정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관광도시 조성 ▲복지행정 ▲명품 교육도시 구현 ▲전원도시 건설 등 '6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지역내 총생산(GRDP)을 높이는 경영행정을 위해 농·축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공공부문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 경영행정을 추진한다.

또 군민 소득창출과 연계되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경영행정을 기반으로 내수면 여업과 공중산업, 미생물 산업 등 새로운 소득산업을 개발할 계획이다.

최 군수는 "지역농업을 '생산하는 농업'에서 경쟁력을 갖춘 '경영하는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광·식품·문화와 접목하는 농업의 신복합 산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담양을 향교리와 운교리를 체험 중심의 '관광마을'로 조성하고, 대덕면 무월리와 봉산면 방축리는 '농촌체험 명소'로, 대덕면 지심마을과 월산면 가곡마을은 '산촌생태마을'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담양향교 명품화 사업과 블루베리 향토산업, 죽순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상품화 등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군은 말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해 경마 테마파크 유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경마 테마파크 유치 총력

무농약 인증 45%로 확대

'담양식 공교육' 꼭 성공

'뉴-담양 농업·농촌 발전 5개년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 무농약 인증면적을 45%까지 확대해나간다. 특히 한·미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촌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해 수립된 '관광도시 담양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을 6대 관광거점 지구로 육성해, 호남권 중심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관광객 700만이 찾는 관광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다.

최 군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녹색벨트 관광지로 자리를 잡은 죽녹원과 국내 최고의 가로수 길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을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고, 다도화 도자기·천연염색·숯공예 등 농촌체험 관광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옛길을 찾아 추억을 느낄 수 있는 '테마가 있는 오밤길'을 브랜드화해 나가고,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영산강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스포츠 마케팅에도 힘을 쏟는다.

무엇보다 찾아오는 '명품 교육도시' 구현을 위해 담양식 공교육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명문·명품 교육을 지원하고, 해외연수 등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력향상을 위해 '방과 후 드림 스쿨'과 명문 고등학교 육성, 성취동기 부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도·농복합 형태의 인구 7만이 거주하는 '전원도시' 건설을 위해 소도시 육성사업과 객사·양각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간다.

이 밖에도 군은 보편적 복지 강화를 통한 다자녀 행복시대 만들기 군민의 행복지수를 올리는 '복지행정'을 위해 저소득 빈곤층과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형식 군수는 "혹한의 해인 2012년이 담양변영의 새로운 여사로 기록될 수 있도록 군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새얼굴

"FTA시대 해외시장 선점 역량 집중"

정중기 광양세관장



"물품 밀반입의 빈틈없는 차단과 불공정 무역행위 단속 강화를 통해 건전한 무역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일 취임한 정중기 광양세관장은 "무역역 1조달러 시대와 한·미·FTA 발효 등 본격적인 FTA 시대의 진입에 따라 FTA를 통해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을 선점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고객과의 부단한

소통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관세행정 수요를 파악하고, 고객의 관점에서 수출입 활동과 관련된 관세행정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성 출신인 정 세관장은 지난 1981년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관리연수원 교수부장, 군산세관장 등을 역임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전남지역 대파 생산량 증가 가격 폭락

kg당 850원, 작년비 60% 평년비 30% 떨어져

전국 재배면적의 77%를 차지하는 도내 대파생산량이 증가에 따른 가격폭락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한창 출하중인 대파의 도매가격은 상품 kg당 85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2100원과 비교하면 60%나 폭락했다. 평년가격 1200원과 비교하더라도 30%가량 떨어졌다.

소매가격 역시 큰폭으로 하락했다. 농산물유통공사의 상품(上品) 1kg 가격이 1777원으로 1년 전 4357원에 비해 60% 떨어졌다. 이처럼 대파가격이 폭락한 것은 생산면적과 생산량 증가 때문이다. /서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hypark@

지난해 대파가격이 예년에 비해 높게 형성되면서 농가들이 올해 생산면적을 늘리는데다 지난해 가을 기후조건도 양호해 대파확률도 높았다.

올해 전남지역 대파 재배면적은 전국 77%를 차지하는 3141ha로 지난해보다 11.6% 증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 대파 가격이 평년가격보다 내려가기는 했지만 지난해에 워낙 가격이 좋아 올해 가격이 더욱 나빠 보인다"며 "대파 수요를 높여 생산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소비촉진 대책을 강구 중이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hypark@

나주경찰서 '대민 만족도' 쑥~욱

2011년 치안성과 평가 전남지역 최우수

나주경찰서(서장 박병동)의 치안행정에 대한 '대민 만족도'가 1년 사이에 급변, 눈길을 끌고 있다. 나주경찰서는 "전남 지방경찰청 주관의 '2011년 치안성과 평가'에서 도내 21개 경찰서 가운데 최우수 관서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나주경찰서는 이번 평가에서 ▲2011년도 치안만족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정보·보안·외사 활동

종합평가 등 핵심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나주경찰서는 그동안 급증했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펼쳐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다.

실제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음주운전 사전예고제'는 지역주민들 사이에 '효자 메시지'로 교통사고 예방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이 때문에 지난 2010년 48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1년 사이에 40%(19명 사망)가 줄어 사망사고 감소율 1위의 성과를 거두는 등 나주시가 전국 1위의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도시의 오명을 벗었다.

또한 나주경찰은 사회적 소외계층인 다문화 가정과 독거노인 등을 위한 다양한 치안정책을 추진, '민중의 지킴이' 역할도 푼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광신대학교

2012-1 여자신학원(여전도사과정) 모집

● 지원자격 : 세례교인인 자(학력제한 없음)
 ● 수업형태 : 2년(4학기) / 주 3일 / 야간제
 ● 교육일시 : 2012년 3월 5일 개강 / 한 학기 15주 / 매주 월·화·목요일 19:00 - 21:55
 ● 수 강 료 : ① 등록금 : 700,000원(한 학기당) ② 입학금 : 50,000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사진 3cm×4cm 2매) 및 담임교역자추천서 1부 ※ 전형료 : 5,000원
 ● 해 태 : ① 매학기 신청자에 한하여 교회봉사장학금 지급 ② 본교 중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학생증 발급(학생에 준하는 열람 및 대출가능)

여전도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 교양과목과 성경 및 신학과목은 물론 상담학, 심리학 등 당회장을 보필하는 여전도사로서 인격을 연마하는데 목적이 있음.

여성가족부 인정
 2012-1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 교육일시(총100시간) ▶ 월, 화, 목, 금 오후 6:00~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 모집대상 <각 향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 및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 교학처 (062)605-1112, 1063

"농민이 잘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전국 남녀 노동자농민 대표자 모집 및 농민당조직 전당대회

농민당 당규

1) 본당은 농민당이다.
 2) 농민당은 노동자농민 및 국민들로 조직한다.
 3) 당 대표를 1명 두어 회장으로 한다.
 4) 부회장에 1명 두어 회장 유고시 회장직임을 대행한다
 5) 당내 원내대표를 1명 두어 대외 책임을 진다, 당의 대변을 한다.
 6) 당내 최고위원을 두어 모든사업 목표를 정하고 당원은 이를 실천한다. 최고위원은 간부 및 도당대표를 정하고 이들은 당사업 목표를 실천한다.

일시 | 2012년 1월 20일(금요일) 오전 11시
 장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청풍원 휴게소 (회비 : 35,000원)